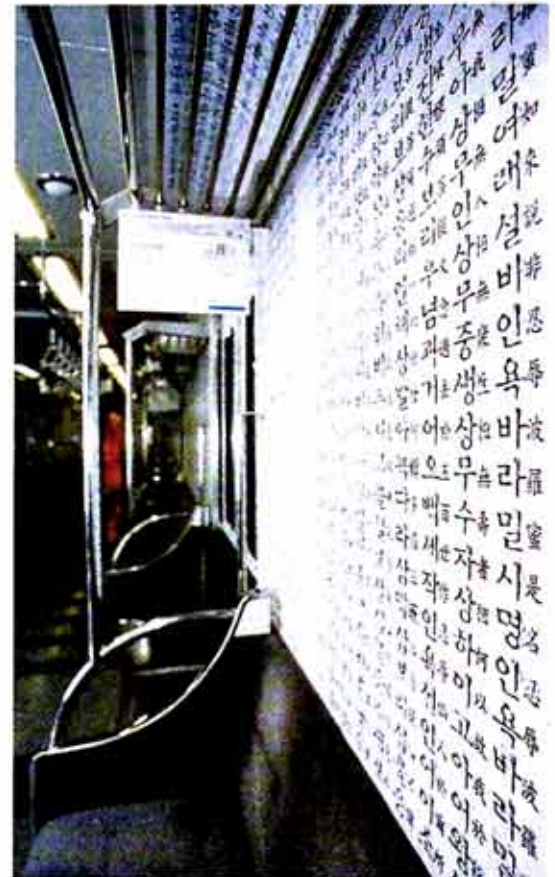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 벽면과 천장을 거울효과가 나는 알루미늄(alu)지로 장식하고 여기에 흰색과 붉은색 띠를 이용 '화엄일승법계도'를 그려넣었다.



나(我)를 찾아서(禪房) 문양이 그려진 광목천을 천장과 의자 시트에 씌우고 바닥은 마루를 깔았다. 사진은 특별행사중 하나인 선무도 공연 모습.



현실의 버팀목(불교) 짐차 <금강경>을 설치하고 형광안개로 짐을 짊어 버짐엔드 볼 수 있도록 했다. 선반에는 향나무를 설치해 향냄새가 나도록 배지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방화'

봉축열차 6월30일까지

봉축열차 주요역 운행시간표

역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방화	11:24 (11:24)	12:31 15:31	11:36 (11:30) 18:30	12:39 15:40 18:40	11:08 (11:08) 17:08	11:15 14:15 17:15
영등포구청	11:59 14:59	12:56 15:56	12:09 15:08 18:08	13:04 16:05 19:05	10:43 13:43 16:43	11:40 14:40 17:40
충정로	11:44 14:44	13:11 16:11	11:54 14:53 17:53	13:19 16:20 19:20	10:28 13:28 16:28	11:55 14:55 17:55
충무로	11:38 14:38	13:17 16:17	11:48 14:47 17:47	13:25 16:26 19:26	10:22 13:22 16:22	12:01 15:01 18:01
홍대문로	11:34 14:34	13:21 16:21	11:44 14:43 17:43	13:29 16:30 19:30	10:18 13:18 16:18	12:05 15:05 18:05
군자	11:19 14:19	13:36 16:36	11:29 14:28 17:28	13:44 16:45 19:45	10:03 13:03 16:03	12:20 15:20 18:20
강동	11:10 14:10	13:44 16:44	11:20 14:19 17:19	13:52 16:53 19:53	09:54 12:54 15:54	12:28 15:28 18:28
상일동	11:01 14:01	13:54 16:54	11:11 14:10 17:10	14:00 17:00 20:00	09:45 12:45 15:45	12:38 15:38 18:38

칸칸마다 부처님 세상 ... 승객들 환희심

나를 찾아서 떠나는 가차여행'을 달고 운행하는 봉축열차. 낮은 놀라움,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지하철에 불교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4월 10일 오후 12시30분 방화역을 출발하면서부터 선방 칸에서는 봉축열차의 특별이벤트가 시작됐다. "음~"으로 시작되는 선무도 공연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힘이 넘쳐 관람객을 흡입하는 듯했다. 선무도 공연에서 시연자로 나선 어린이 두 명은 단연 인기. 고사리 손으로 펼쳐내는 선무도 동작 하나 하나에 열의가 가득했다.

일부러 봉축열차의 공연을 보기 위해 탄 승객들은 선무도의 호흡법과 무술 시범에 시선을 빼앗긴 채 1시간여를 보냈다. 미처 공연사실을 몰랐던 승객들은 내려서도 출구 출구 들여다보며 신기해했다. 종종 내려야 할 곳을 놓치고 허둥대는 승객들의 모습도 눈에 보였다.

선무도 공연 중에도 광대본 장을 한 운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케릭터 인형을 나눠주고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들은 광대에게 인형을 한 개 더 달라고 부탁하는 등 동심으로 돌아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불빛의 환상속으로

봉축열차의 첫번째로 마련된 법계도 칸에 들어서니 우선 아광빛으로 다가오는 법계도 모양이 엄숙함과 더불어 위엄을 나타내고 있었다. 까만 실내에 형광색 선들이 색색으로 빛나고 승객들의 흰 옷이 파르스름하게 빛을 내뿜는다.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법계도 칸은 화엄일승법계도의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 존재의 근원에 의문을



◇정연하게 놓여선 발우를 속에도 수행자의 치열한 구도열이 숨쉬고 있다.



인연(因緣)잇기 500여명의 미아 사진과 정보를 담고 있다. 인연이 다하지 않음에도 헤어짐의 괴로움을 맛보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인연 찾아주기를 한다.

던지는 사람에게 존재의 중반쯤을 소리와 색으로 표현한 곳이다. 법계도 칸에 갈 때에는 하얀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얀 옷에 비추는 불빛의 환상에서 문득 자신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까맣고 환상적인 느낌의 법계도 칸을 지나면 하얗고 맑은 세계가 펼쳐진다. 나를 찾아서(禪房)'란 제목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단아한 느낌의 구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산사 깊숙이 마련되어 있는 선방에 들어선 것처럼 발우가 울려져 있고 한지로 발라진 벽은 향내를 머금고 있는 듯 하다. 순간 화두에 들어 삼매에 빠져든 수행승이 되어 본다.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나를



연꽃세상 천장과 창문, 벽면에 여러 재질의 연꽃 조화를 부착하고 바닥과 손잡이는 연꽃문양지를 붙여 승객들이 연꽃 밭속에 들어있는 상상이 가능토록 했다.

돌아보도록 하는 선방. 마루가 깔린 정적인 느낌의 선방에 들어서면 수다를 떨기보다 잠시라도 입정에 들어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선미(禪味)를 느껴본다면 어떨까.

깊은산 선방에 온듯

선방의 다음 칸으로 가면 경전의 세계가 눈에 들어온다. 참선을 막 마치고 난 다음이라서 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선정에 몰두한 나를 직박이 세우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벽면을 수놓은 <금강경>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불자들까지도 한손에 끌어들이는

<금강경> 자구 하나하나가 모두 짐차로 같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벽을 더듬다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이 또한 환희로움이 아닐까. 이 칸은 '현실의 버팀목(불교)'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불우한 소수의 현실적 버팀목으로써 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인연(因緣)잇기' 테마칸은 은빛 사진방이다. 인연을 잇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옷장 한번 스티치 위해서 세세생생 윤회의 고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 바로 인연의 길이다. 그래서 인연잇기 칸에 들어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된다. 이 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은 미

이벤트 계획

날짜	프로그램	시간
4월24일(목)	선무도	
4월26일(토)	전통음악회	
5월1일(화)	내팔뚝통승 선무도	10:00
5월10일(목)	전통음악회	
5월13일(일)	내팔뚝통승	14:00
5월22일(화)	선무도	
5월27일(일)	내팔뚝통승	

아들의 사진이다. 어디에선가 부모를 그리고 있을 이 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연이것이다. 선업방 가진 것이다.

미아를 부모품으로

마지막으로 지나는 칸은 연꽃으로 장엄된 '연꽃세상'이다. 연꽃을 진분홍 빨강 등 색색의 연꽃이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온통 눈을 시리게 한다. 손잡이까지 연꽃벽지로 휘감겨 꽃밭에 들어서 있는 느낌이다. 조명마저도 핑크색이다. 아이와 같이 나들이 나온 일부 승객들은 연꽃방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워한다.

방화에서 상일동까지 다시 상일동에서 광화문까지 두시간여를 봉축열차에서 보냈는데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앞으로 전통음악 연주회, 배낭 전통출공연, 특색 사진 촬영 등의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봉축열차. 하지만 그 열차는 지금의 우리들이 부처를 이루는 것을 다짐하는 서원의 법당이다.

글=강지연 기자 (lygang@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lygo@buddhan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매실액기스



매년 봄이 되면 민주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도 황사 현상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황사가 늘 우리에게 시련만을 준 것은 아니다. 1624년(인조 2년) 당시 평안병사 이괄이 난을 일으켜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가야 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도성에 입성한 이괄은 선조의 10째 아들 흥안군을 새 왕

으로 추대했다. 당파싸움에 얽힌 관군 연합은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 방어사 정충신(鄭忠信) 장군은 빈란군의 전세를 살피기 위해 북방에서 부임등으로 내려오던 중 어린 사미승 2명이 노는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정충신이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 잠시 후엔 전투가 시작될 게요"라며 소리쳐도 사미승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정충신은 큰

봄철 호흡기 질환에 효과

소리로 사미승들을 꾸짖자 "우리 스승이 말씀하신 그 미련한 정충신이 아닌가. 그대는 서풍(西風)도 모르거늘 왜 우릴 미련하다 하는가"하며 도망쳤다. 악이 오른 정충신 장군이 사미승을 잡으려고 비탈 길을 올랐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 지금의 무악산이었다. 그곳에서 정충신은 서풍(西風)의 의미를 깨달았다. 부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며 밤새 관군을 무악대로 이동시켜 도성을 내려다보자 이에 위기를 느낀 이괄이 먼저 공격해왔다. 지금의 적십자 병원터에서 벌어진 관군과 빈란군의 일대 격전. 오전에 벌던 동풍

이 사시가 지나면서 서풍으로 변하기 시작하다니 흥안지가 가득한 황사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람 덕분에 관군은 승세를 잡고 이괄의 난을 평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해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요즘의 독감 같은 것인데 고열이 수반된 이 병에는 불에 구운 매실이 효험이 있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의 난이 일어난 그 해에는 매실까지 흔적이어서 아래저래 백성들의 고통이 깊었다. 시절이었다. 봄철 호흡기질환에 매실 액기스나 매실차는 아주 유용하다. **■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기반 특별한 식단이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황매실, 황설방
 ① 매실육을 씨와 분리하고 매실을 곱게 갈아 즙을 낸다.
 ② 은근한 불에 약 5시간 이상 끓인다.
 ③ 식힌 다음 밀봉하여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타서 먹는다.
 효능 ① 심장을 안정 시키며 반산마비를 치료한다.
 ② 갈증과 답을 없애주고 학질과 토역관리에 좋다.

